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보 도 참 고 자 료

배 포 일	2018.7.20.(금) / (총 8 매)			
감염병관리과	과 장	조 은 희	전화	043-719-7120
	담 당 자	이 윤 희		043-719-7111
바이러스분석과	과 장	강 춘		043-719-8190
	담 당 자	이 덕 용		043-719-8194

수족구병 발생 지속 증가, 예방수칙 준수 당부

◇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, 0~6세가 큰폭으로 증가

◇ 수족구병이 의심(발열, 물집(입안, 손, 발))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

◇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 손씻기 생활화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최근 수족구병*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, **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**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.

* 수족구병: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**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,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**으로 하는 질환으로 **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**하며,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(침, 가래, 콧)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됨.

○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, 수족구병 의사환자*수는 '18년 **26주 16.2명**(외래환자 1,000명당), **27주 24.9명**, **28주 27.5명**으로 지속 증가하였고, 특히, **0-6세 발생(33.6명)이 높았으며** 8월말까지 환자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.

*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(‰) : 수족구병의사환자수 / 전체 외래환자수×1,000

**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확인 :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탈 홈페이지(http://www.cdc.go.kr/npt) → 소식지 → 감염병표본감시 주간소식지(매주 목요일 17시 이후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□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후 7~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며, **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**하다.

○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, 구토,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, 뇌실조증,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 외에 심근염, 신경원성 폐부증,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.

○ 따라서 **발열, 입안의 물집,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**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**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**를 받아야 한다.

□ 수족구병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**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**하고,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**어린이집, 유치원 등**에서 **아이 돌보기 전·후 손씻기, 장난감 등 집기 청결히 관리하기 등**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< 수족구병 예방 수칙 >

◇ 올바른 손 씻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
- 외출 후, 배변 후, 식사 전·후, 기저귀 교체 전·후
- 특히 산모,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, 유치원, 어린이집 종사자

◇ 올바른 기침예절
-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

◇ 철저한 환경관리
- 아이들의 장난감, 놀이기구, 집기 등을 소독 하기(붙임 2 참조)
-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

◇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하기(발병후 1주일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<붙임> 1. 수족구병 발생 현황
2.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
3. 올바른 손씻기 홍보 자료
4. 수족구병 Q&A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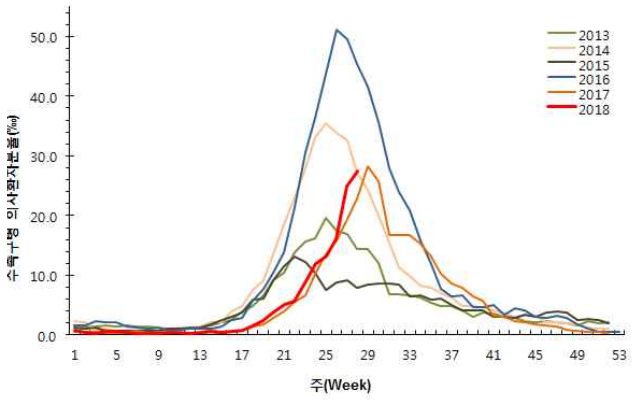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1 수족구병 발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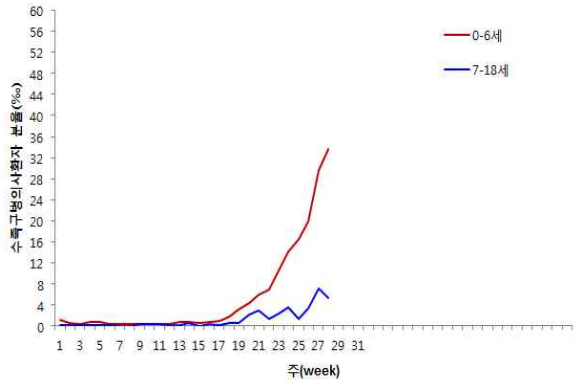
□ **(임상 감시)** 수족구병의사환자수 분율*은 2018년 **25주**(6.17~23) **13.3명**(외래환자 1,000명당), 26주(6.24~30) 16.2명, 27주(7.1~7) 24.9명, **28주**(7.8~14) **27.5명**(잠정치)으로 연속증가

*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(천분율) = 수족구병의사환자 수/총 진료환자 수 x 1,000

○ 제28주(잠정치)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수는 **0-6세군에서 33.6명, 7-18세군은 5.3명임**



<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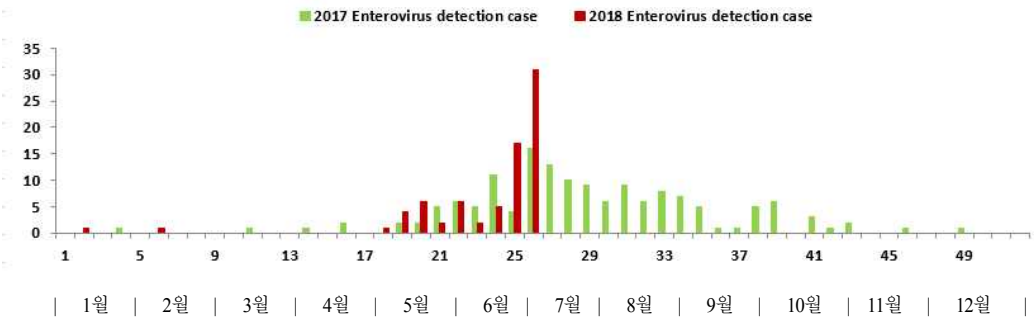


<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>

□ **(실험실 감시)** 2018년 27주(1.1~7.7)까지 수족구병 의심사례 시험 검사 의뢰 169건, 양성 검출 104건, 양성률 61.5%

○ 원인병원체 : 콕사키바이러스 A10(31건), 콕사키바이러스 A4(12건), 엔테로바이러스 71(6건), 에코바이러스 3(4건), 콕사키바이러스 A8(3건), 콕사키바이러스 A21(2건), 콕사키바이러스 B5(2건), 에코바이러스 11(2건), 콕사키바이러스 A5(1건), 콕사키바이러스 A6(1건), 콕사키바이러스 A16(1건), 콕사키바이러스 B4(1건), 라이노바이러스 (1건), 기타 엔테로바이러스 (37건)

* 2017년 국내 유행주는 콕사키바이러스 B4(14.1%), 콕사키바이러스 A5(13.1%), 콕사키바이러스 A10(10.0%), 콕사키바이러스 B2(8.2%), 콕사키바이러스 A2(6.7%), 엔테로바이러스 71(5.1%), 에코바이러스 30(3.1%) 등의 순으로 확인



<주별 수족구병 병원체 감시결과>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2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

□ 환자가 만진 물건이나 표면 등은 소독액(염소 0.5%(5,000ppm))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냄

□ 소독시 주의사항

○ 장갑, 마스크,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

○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(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)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실시

○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

○ 소독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

□ 소독액 만드는 방법

염소 0.5% (5,000ppm)
① 빈 생수통 500ml에 종이컵1/3양의 염소계 표백제를(4%기준) 붓습니다.
② 물을 더해 500ml를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습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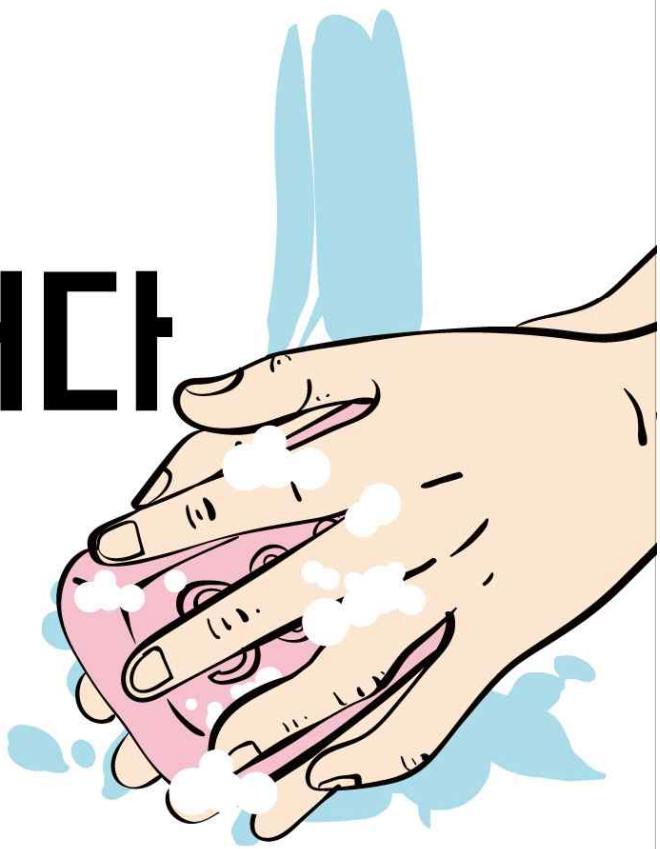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3 올바른 손씻기 홍보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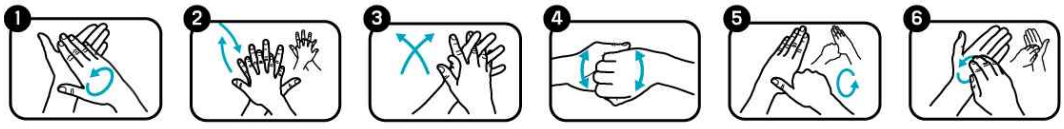
질병관리본부 KCDC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손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씻는 거다

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
감염병이 의심될 때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붙임 4 수족구병 Q&A

Q1. 수족구병은 어떤 병인가요?

○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 입 안, 손,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감염입니다.

○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주로 콕사키바이러스 A6, A16, 엔테로바이러스 71 (EV71), 다른 콕사키바이러스 A10 등이 있습니다.

○ 대부분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생기며 봄철에 증가하여 여름에 유행 합니다.

Q2.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수족구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?

○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, 인후통, 식욕부진 및 피로감(권태감) 등입니다.

○ 발열 1~2일 후에, 입 안의 볼 안쪽, 잇몸 및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.

- 이 같은 반점은 수포 또는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

- 또한, 손, 발 및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가끔 팔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발진에는 융기 또는 편평형 붉은 반점과 수포도 포함됩니다.

○ 수족구병의 증상은 보통 경미하며 대개 7~10일 내에 저절로 없어지지만,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(뇌막염, 뇌실조증,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 외에 심근염, 신경원성 폐부종, 급성 이완성 마비 등)

○ 특히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영아의 경우,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원인인 경우 뇌수막염, 뇌염, 마비증상 등 합병증의 발생이 더 높습니다.

Q3. 어떻게 감염이 되나요?

○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(침, 가래, 코, 수포의 진물 등)과 직접 접촉 또는 이러한 것으로 오염된 물건(수건, 장난감, 집기 등) 등을 통하여 전파됩니다.

○ 발병 첫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고, 잠복기는 약 3~7일입니다.

Q4.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?

○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, 특히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발생시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

○ 진단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녀들이 수족구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학원 등에 보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Q5.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?

○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○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.

– 수족구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가 화장실 사용 후, 기저귀를 간 후 또는 코와 목의 분비물, 대변 또는 물집의 진물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의 올바른 손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

○ 장난감과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물로 세척한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.

○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예절도 준수해야 합니다.

○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,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. 또한 증상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